

거제시에 인공기계양, 국가보안법은 어디로? 경남 거제 시내에 북한 인공기가 웬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거제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는 환경 운동가 개인이기 한 일이기 때문이라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인공기를 전국을 돌며 계양하고 있다는

데... 광화문 광장인 서울 한복판에서도 인공기를 흔들며, 또는 계양하고 북한과 회를 찬양하는 행위, 신촌 모 식당 입구에도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과 인공기를 장식했는가 하면 모 단체인 노조도 지난

번 촛불 시위를 하면서 북한 괴뢰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낭독하는 행위가 벌어졌어도 경찰은 관심도 없는 듯 그대로 보고만 있을 뿐이다. 어느 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에 문의하자 집회의 도구(인공기)를 가지고 개인이 한 행위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분명히 북한 인공기 계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인데도 언제부터인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부가 되었다. 그래서 경찰관의 말은 거제시에 다시 인공기가 계양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서 국가는 엄정한 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각 방송은 뉴스 시간에 앵커들과 기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란 말은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을 북한 괴뢰로, 김정은을 괴뢰도당이라고 명기해야 한다. 북한 괴뢰, 김정은은 괴뢰를 존칭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북한 괴뢰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악하지 않는가? 그래도 위원장이라고 존칭어를 사용할 것인가? 언론들은 좌파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올바른 보도, 정직한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1천만 성도 여러분! 20만 목회자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가 된 것을 잊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정신차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가 안보를 위하여 기도도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가와 국민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더욱 강력한 군사력으로 안보에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과 전 직원 일동은 지난 주간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기총, 서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명서



신하석 목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하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외국인 26명을 포함하여 154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 당한 이 사고

는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대구체육관(2000년), 팬클럽모임(2001년), 광양 중동체육관(2005년), 경주 상주시민운동장(2005년), 롯데월드(2006년)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 역시 우리 사회의 관행이 되어버린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이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로윈데이'는 가을의 축일인 '모든 성인 대축일 (Sollemnitatis Omnium Sanctorum)' 또는 '만성절(萬聖節)'인 11월 1일 하루 전인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되어 보낸 것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만기독교적인 행사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교회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에게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신앙)개혁의 날'이라는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귀신이나 주술 등 즐기는

'할로윈 데이'로 지낼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일어난 신앙개혁의 날임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마련하여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교회의 역할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라는 점에서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에게 세기총은 더없는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나누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일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신하석 목사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군사력은 안보의 초석"

대하 32:5-6절에 기록된 말씀은 "또한 히스기야가 스스로 힘을 길러 파괴된 성벽을 모두 쌓아 망대까지 높이고 또 하나의 외성도 쌓았으며, 다윗 성읍의 밀로를 개수하고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6 또 그가 군대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성문 거리에서 자기에게로 함께 모아 그들을 위로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이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앗시리아의 산해림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한 것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과 전투태세로 적을 맞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지난달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극동방송(이사장 김정환 목사, 사장 한기봉) 극동

아트홀에서 제52회 극동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 강사로 나선 월러드 벨러슨 미8군 사령관은 "한미동맹,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다"는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월러드 벨러슨사령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부흥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또한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했다.

1. 평화를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줄 것과
2. 한국 주둔 미군과 한국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하여 기도해줄 것을 주문. 했

주경란

통일선교사
(cp)5037@daum.net 방송신문 기자



다.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상태이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살아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깨어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의 초석을 더 굳건히 함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의 터전을 굳게 지키면서 한반도에 자유복음통일을 이룰 그날을 맞을 준비를 완성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살람!

축 2022년도 제107회기

예장(웨신)총회·노회 임원 워크숍 공지

주제 : “엔데믹, 회복되고 성장하는 총회”(시 92:12)

총회장	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김현수 목사 꿈너머교회	양덕심 목사 새성명교회	임예성 목사 별빛교회	김복래 목사 공과요양교회	이병만 목사 원주중앙교회	이영선 목사 하늘성교회	황금주 목사 수원성교회	김미라 목사 주산성교회	허승무 목사 더열교회	이승표 목사 하늘나라교회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22일화), 1박 2일
장소 : 덕산 스파뷰호텔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2로 77 ☎041-337-1000

총회장 / 김현수 목사(박사) 010-7667-4719
총무 / 김복래 목사 010-9821-3927
웨신 본 교단에 뜻을 같이할 교단과 노회, 개인과 선교단체 등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찾아오시는 길 : 네비게이션 입력하고 오세요
위의 주소를 입력하고 오시면 덕산 스파뷰호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단 목회서신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대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의 유가족과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 겪고 있는 비통과 슬픔에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에 이어, 급속한 환율 상승과 물가의 폭등, 이례적인 강진, 급기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초대형 인명사고까지 이어져 내부적 슬픔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애도기간’을 정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교총 또한 11월 5일 준비한 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고통과 비애에 함께 함은 물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까지 적극적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신 사랑하는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당면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3, 4).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평안히 즐기며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성경적인 건강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통회하듯 뉘우치며 가슴을 찡니다. 이 위중한 환난 가운데서 온 교회와 사회가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골방에서 산책대기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친구를 잃고 침통해하며 극한 트라우마를 가슴 가득히 안고 살아야하는 엄마와 아빠, 유가족들과 진지들을 위로하며, 부상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젊은이들과 유가족에 대하여 품격있는 예절과 진심으로 보듬어 안고 함께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탁이지만, 책임을 추궁하듯 거친 인사를 내뱉거나 흑역사도 비난의 연사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애뜻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음 세대에겐 물려줄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한교총 모든 교회들과 유관 부서와 위원회를 총가동하여 대한민국이 당한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이번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모금과 지원활동에 나섭니다. 3. 교파와 정파를 떠나 성경적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부정적인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으므로 2차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모든 회원 교단의 모금과 성도들의 순수한 지원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공동으로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단 일동
대표회장 :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북미주한인나사렛성결교회 총연합회

북미주한인나사렛성결교회 총연합회(회장 이성헌 목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 까지 나흘 동안 전양교회에서 북미주한인나사렛 성결교회 목회자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연합회 회장 이성헌牧사는 “어두운

터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도 환히 비추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북미주한인나사렛성결교회 총연합회는 지난해 회년을 맞이하여 대회를

준비해 왔지만 계속된 코비드 확산으로 대회를 열지 못하고, 올해 열게 됐다”며 “앞으로 이 총연합회를 잘 이끌어 주실 회장님이 선출되어서, 계속 전진하며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러 다민족 선교교장은 “미국, 캐나다 다문화 사역 국을 대표하여 지역 교회에서 목양과 봉사로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주님의 사명과 나사렛 교회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양성의 비전에 충실하고자 사역을 새롭게 구성해 가는 목회자들과 회중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총 연합회 개최와 관련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쏟아부어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영감, 비전, 재정비, 교제와 후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 그레이스 김 목사가 세미나 특강, 이문주 목사가 ‘세계 복음선교의 틀을 만든 전도자 무디’에 대한 특강, 케빈 김도어가 P&B 강, 김인경 목사, 이원규 목사가 선택 세미나 특강을 각각 인도한 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그리피스 천문대, 베니스 캐널스, 더 캐티, 유니버설 시티 전광대,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등을 방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한교연, 국가조찬기도회 매월 정례화

‘김장나눔행사’ 예년에 3배 확대키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13일(목) 오후 1시 경기도 장호원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제11-4차 임원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교연 ‘국가조찬기도회’를 매월 1일 정례화하기로 하고, 제12회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임원회에 앞서 지난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과 총무(사무총장)를 비롯해 회원교단 단체 신임 대표 50여 명이 참석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1일 국가조찬기도회와 11월 17일 사랑나눔김장 대축제 행사 등 한교연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서사라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공동회장 조명숙 목사(호헌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인도했으며, 박 베드로 목사의 특송 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차별하지 말라’(약2:1-4)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불품없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

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자매 친구로 대하셨다.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수가 많은 적은 형편이 어떠하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교세가 큰가 작은가를 따지고 교회가 부요한가 가난한가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풍조가 생겼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한교연이 지난해 총회부터 회원교단(단체)이 똑같이 분담금을 내고 총대 파송 등 회원의 권리도 똑같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서 “한교연은 누가 크다 작다,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구분하고 차별도 하지 말고 모두 주님의 한 형제자매라는 연대의식으로 하나되자”라고 역설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광고와 박요한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임원회 회무처리는 제12회 총회 관련 일정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으며, 제12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관에 따라 위원장은 직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로서 하고 위원 추천은 공동회장 중에서 6인을 추천하도록 대

표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임원들은 최근 북한의 전술 핵무장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외 정치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만과 나태를 회개하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개최한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이어 11월 1일 오전 7시30분에 국민일보 빌딩에서 제2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한교연 소통위원회(위원장 장상홍 장로)는 이 기도회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7일(목) 서부역 참총은전구들에서 열리는 ‘2022년 사랑나눔 김장축제’에 회원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를 비롯해 양념 등의 가격이 폭등한 것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3배로 증액하고, 김장을 배분할 사회복지시설 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임원회는 가임실사위원회(위원장 김병근 목사)와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김효종 목사)의 심의를 거친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대표 신명섭 원장)를 새 회원으로 받기로 결의하고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또 회원교단 중 ‘예장A’를 ‘개혁회복’(총회장 한요한 목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장 호헌’(총회장 조명숙 목사)에서 분리된 교단 명을 ‘예장정통’(총회장 현 베드로 목사)으로 쓰도록 하라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계룡에서 6.25참전용사 초청 예우행사 가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태훈, 이응우, 장준규)는 지난 10월 7일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국내외 참전용사 및 그 후손 80명을 초청하여 6.25참전에 대한 예우행사를 가

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중앙회장 손희원, 손봉진 총남지부장을 비롯한 유공자회 관계자 50명, 콜롬비아 출신 참전용사(마르코 톨리오 바론 리베라), 그 밖의 해외 참전용사 후손 25명과 각 군 인사 참모부장이 초대되었다.

이번 행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인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에 걸맞게 콜롬비아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해외 참전용사들을 대신하여 국내에 거주중인 후손들을 초청하였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으로 복

무중인 후손 5명 및 그 가족과 콜롬비아, 필리핀, 프랑스, 에티오피아 등 9개국에서 온 20명의 후손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그들 할아버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훈 지사는 “국내외 6.25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할뿐만 아니라 북한보훈행사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께 감사를 표하고 예우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엑스포의 개최 의의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오충철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양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cpj5037@daum.net / jtntvcpi@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 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신앙, 율동, 위협,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 아산 임마누일교회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담임목사 강익수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3부 오후 2: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 오전 5:30

충남 아산시 득산로41번길 49-16
☎ 교회 : 041)546-4325 010-3759-0192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임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예장(합동보수)총회 제107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 연임

주제 :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소서(시 84:1~8)



례사 전예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에 이어 임원선출은 총회장 이규필 목사를 재추대하고 임원 전원 유임기로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하고 회무를 진행한 후 각부보고는 신임원과 각 노회장에 위임한다는 결정 아래 폐회를 선언 공포했다.

이날 예장(합동보수)총회는 전원 연임되었다.

제107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한중노회 동천교회), 부총회장 정요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는 지난 20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동천교회에서 제107회기 성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부총회장 정요한(한돌교회)가 기도하고, 시 84:1~8절을 서기 서재식 목사가 봉독한 후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말씀을 통해 제107회 성총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총대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인사하고, 오늘 주제와 같이 시온의 대로를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했다. 본문에 등장한 고라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 항상 성전에 올라가 헌신하며 주의 장막을 사랑을 사랑했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설명했다.

목회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을 전하고, 목회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사모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모하고 사랑하면 목회 또한 힘이 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면 행복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라고 했다.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문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심같이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자연까지도 사랑하시며, 공중 나는 새도 물고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특권이 주어진 자라고 했다.

끝으로 이 총회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힘으로 산다고 했다. 그것만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고 했다. 우리 모두의 목회 사역에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성도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이러저러한 일로 꼬이는 일들이 많다. 총회 총대 여러분 목회 사역과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했다. 총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영원을 사랑하는 꿈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대로가 열리고, 환경은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주 안에서 승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셀라)’. 이처럼 우리는 기도에 빠지지 않아야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응답할수록 기도하고, 눈물과 아픔과 절망에서도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도 승리하자고 기원했다.

이어 총무 박용순 목사가 광고하고,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에서 전예회 목사(서인 증경노회장)의 집례했으며, 천종목 목사가 기도, 전예회 목사는 고전 11:23~29절을 주제로 ‘성찬의 의미’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성찬예식에서 분병, 분찬위원은 김관호 목사, 서종우 목사가 맡았으며, 집

(한돌교회 CBNV 언론대표), 서기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 부서기 천종목 목사(연약교회), 회의록서기 김주현 목사(빌라델비아교회), 부회의록서기 배영자 목사(금천시온교회), 회계 송인선 장로(인천양문교회), 부회계 강대섭 장로(영안교회), 총무 박용순 목사(화목한교회) 등이다.

이날 총회장에 연임된 이규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총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데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며 인사하고 제107회기는 기도와 말씀을 따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총회가 되고, 노회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면서 힘써 나가자’며 다짐했다.

이날 폐회 예배는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김주현 목사(서인 노회장)가 기도하고 이 총회장은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성은 가운데 마쳤다.

한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잠드신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사모는 107회기 성총회에 참석하여 천국환송예배에 협조하신 총회에 감사드리다며 식사를 대접하며, 인사했다.

이날 개회 예배를 비롯 성찬식, 폐회 예배에 이르기까지 동천교회 이선영 목사가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며 봉사했다. 또한 지저스타임즈 CJTN TV(경기남 대표)는 총회 과정을 방송하고 있으며,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본 신문방송에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명예 이사를 맡고 있으며 문서선교에 힘쓰고 있다.

예장합동(보수) 한중노회 185회 정기노회 열어

-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



이세중 목사

(배영자 목사)에서 예장합동보수 한중노회 제185회기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현 노회장 이세중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유임했다.

이세중 노회장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김태국 목사가 대표 기도를 드리고, 부노회장 김관호 목사가 성경 록 2:41~49절을 봉독한 후 노회장 이세중 목사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는 제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세중 노회장은 ‘왜 예수를 찾아야 하는가’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원인과 해결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후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은혜로운 설교는 지저스타임즈 cjtn tv 방송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많은 은혜가 된다.

2부 성찬예식은 총회장 이규필 목

사의 집례로 진행되어 성찬을 위하여 직전노회장 한기장 목사가 기도드렸다. 집례자 이규필 목사는 고전 11:23~29절을 봉독하고 “성찬의 의미”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이날 분병 분찬 위원은 서정오 목사, 배영자 목사 등이 맡았으며, 집례자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원 점명, 개회선언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가운데 임원선출에서 노회장 이세중 목사(온수교회), 부노회장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서기 김관호 목사, 신임부서기 이혜숙 목사(두손을모은교회), 신임부회의록서기 서정오 목사(새생명교회), 회계 배영자 목사(금천시온교회), 부회계 송인선 장로(양문교회) 등을 선출했다.

이날 한중노회는 신간건토의를 진행하던 중 나머지 안건과 상비조직, 내외장소 등을 임원에게 일임했으며, 회의록제택은 다음 회기에 수정 보완하여 보고할 것을 결의하고, 노회장 이세중 목사는 폐회예배에서 신 33:26~2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끝으로 회기에야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가졌다.

김성윤 기자 cpj5037@daum.net

“주여, 이 땅에 대부흥을 주소서!”



다민족연합 기도회가 청교도신앙회복 운동본부, OC교협, JAMA,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 공동주최, 다민족연합 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가 인도를 가운데 지엠아이·엘림 연합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심상은 목사(공동준비위원장)가 개회기도를 한 후 한기홍 목사(대표대회장)가 환영인사 및 목회자 회개기도를 했다.

한 목사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인 적이 있었는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적이 있었는가?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악법 중의 악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진 성경체성을 어찌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립학교의 교육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

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겠나니.’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역대하 7장 13-14절에서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열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길 잘 믿는다. 미국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민족 기도회 지도자들이 다양한 기도제목으로 그룹 별 도전 메시지를 선포했다.

축 제 107회 예장합동(보수)총회 임원일동 배

주제 :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소서(시 84:1~8)

증경총회장	총 회 장	부총회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정요한 목사 현물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종목 목사 연약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송인선 장로 양문교회	강대섭 장로 평안교회	박용순 목사 화목한교회



성 총회가 총대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아 진행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료되었음을 107회기 임원일동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화) 오전 11시 한중노회는 제185회기 정기노회 갖고 하나님의 성은 중 마쳤습니다. 노회장 이세중 목사, 부노회장, 서기 겸직 김관호 목사, 부서기 이혜숙 목사, 회의록서기 한복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서정오 목사, 회계 배영자 목사, 부회계 송인선 장로 등이다. 축하합니다.

[알림]
예장(합동보수)총회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하며 교단 발전에 헌신할 목회자, 교단, 노회, 기관단체의 가임을 환영합니다.

가입문의 : 총회장 이규필 목사
010-7474-3173
노회가입 : 노회장 이세중 목사
010-4946-3934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 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 규 필 목사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94,(가산동)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오종설목사, 교회창립 33주년기념 및 새성전봉헌예배 명예권사 추대 및 권사 54명 임직식 가져



축 33주년 임직식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오종설 목사)는 홍성읍 자경로에 내포성전 평안하고든든한 교회를 건축하여 지난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교회창립 33주년을 맞아 성전봉헌식 및 명예권사 6명을 추대하고, 남녀 권사 48명 등 54명을 새 일군으로 임직식을 가졌다.

담임 오종설 목사의 인도로 임직 예배가 시작되어 수성교회 담임 최연범 목사가 기도했으며, 엘리트교회 담임 조병천 목사가 성

경 행 8:4~8절을 봉독하고, 권사 임직자 일동이 특별한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충남노회장 김상욱 목사(보령남포교회)는 '사랑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충남노회장 김 목사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결과는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는 서두와 함께 오종설 목사가 홍성에 와서 일어난 일은 현재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축하하고, 홍성 지역에

큰 기쁨을 주는 오종설 목사와 홍성제일교회와 평안하고든든한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며 축복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오늘 성전 봉헌과 권사 임직식은 물론 홍성제일교회와 평안하고든든한교회는 사랑으로 세움받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한 사람으로 지음 받은 이 집이 큰 기쁨의 좋은 일들을 해내서 홍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했다.

이어진 성전봉헌식은 당회장

집사 등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고, 김동규, 김영수, 김정현, 김택노, 신경세, 안진국, 윤용찬, 이재진, 조병문, 최원석, 강영자, 김경화, 김명순, 김영인, 김재덕, 김현주, 나인서, 박경화, 박기순, 박복순, 박연순, 박임성, 백영빈, 복연수 서정자, 손미란, 신윤숙, 오선미, 유은경, 이경자, 이미란, 이미자, 이봉희, 이선민, 이선원, 이성순, 이정배, 이태욱, 이화자, 장남숙, 전용자, 정상화, 정진주, 조명란, 조혜순, 진유순, 최문경, 하미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오종설 담임목사

영 등 명예권사 6명, 남 권사 10명, 여 권사 38명, 54명이 임직을 받았다.

이날 권사 임직식에서 서약과 안수기도, 선포가 있는 후 임직과 증정과 월포교회 합필주 목사의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축하 예식에서 박종서 목사(등애교회), 민흥기 목사(대덕중앙교회)가 격려사를, 안준호 목사(충기총 총회장), 유방기 목사(전주대광교회)가 축사를, 동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 배성진 목사(본교회출신), 원동천 강도사(본교회출신), 오바울 선교사(라오스), 박현구 선교사(필리핀), 박진구 선교사(일본, 나고야 국제교회), 김영선 목사(자매현령교회), 신성철 목사(감리교의료), 김태진 안수집사, 등이다. 이



설교 김상욱 목사(충남노회장)

어 오종설 목사가 22년 동안 설교를 해온 제98보병여단총절나눔교회 박세우 여단장 및 군장병들의 뜨거운 축하와 보령 다니고실은교회 김철중 목사 외 출향인 및 자녀들의 축하에 이어 육군본부에서 첨가하고 있는 김희환 안수집사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축하를 이

어갔다. 임직자를 대신하여 김정현 권사가 인사를, 충남회장 박상우 권사가 광고를 충남노회원로목사 나양한 목사의 축도가 있는 후 기념촬영을 갖고 성스럽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예장 웨신 제107회 총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 유임



예장 웨신 제107회 총회가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61번길 25 소재 꿈너머꿈교회에서 열

고 총회장 김현수목사를 유임시켰다. 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양덕심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증경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감사와 축사가 있는 후,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 총무 김복래 목사가 광고와 김안식 목사(청주 월만한물

가교회)의 축도로 1부 개회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제107회기 총회장으로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담임목사)가 유임되고, 회무처리에서 서인노회가 설립 인정을 허락받고 정식 신설된 노회로서 업무에 들어갔다. 서인노회는 노회장 정미후 목사, 부노회장 오문의 목사, 서기 황정호 목사, 회계 한재원 목사, 감사 양덕심 목사 등이다.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지난 제106회기를 기념하기 위해 화보집을 발간하고 제107회 총회에서 화보집을 배포했다. 김현수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제106회기에 '부르심의 뜻과 사명(행 20:24)'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일하는 총회'라는 뜻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웨신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부족한 중을 돕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임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만장일치 박수를 받으며 재임된 김현수 총회장은 제106회기 동안 '웨신총회의 날'을 통해 웨신총회가 함께 모범 웨신인 시상(목회자상, 사회봉사상, 공로상)식을 통해 웨신총회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또한 GOODTV와 MOU체결을 통해 웨신총회 행사에 대해 적극 보도를 약속하고 또한 웨신총회는 지저스타임즈 cjtn tv와의 MOU를

체결한 후 7년 차 협력하고 있다.

예장웨신총회 제107회기에 연임된 김현수 목사는 동탄 꿈너머꿈교회 담임목사로 부활실천신학 전국환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목사이다. 또한 김현수 총회장은 기독교부활연구문화원원장, 홀리캐슬 대표, 부활실천신학 전국환송학 주임교수, 기독교국제연합 상임회장, 한교총공동회장, 대한노인회기독교연합회 실무회장을 맡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3부 폐회예배는 부총회장 임예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서기 이병만 목사가 기도를, 부서기 이영선 목사가 성경봉독(욥 8:5-7)을, 특송에 "어머니의 기도" 이정혜 목사, 직전총회장 박정규 목사는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란 제하의 말

씀으로 선포했다. 이어 총무 김복래 목사가 광고를, 원로 이규 목사의 축도가 있는 후 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제107회기 총회를 마쳤다. 예장 웨신 제107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 1부총회장 양덕심 목사(새생명교회) △ 2부총회장 임예성 목사(나주벚꽃교회) △ 총무 김복래 목사(꿈교회망교회) △ 서기 이병만 목사(원주주향교회) △ 부서기 이영선 목사(하늘샘교회) △ 회의록서기 함금주 목사(수원소망교회) △ 회계 허승무 목사(단열교회) △ 부회계 이승표 목사(한울타리교회) △ 감사 이영풍 목사(빛교회) △ 마순덕 목사(사랑하는교회) 등이다.

축 33주년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성전봉헌식 명예 권사 추대 및 권사 임직식

예배 시간 안내

주일 낮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주일 밤, 수요일 밤 / 예배 저녁 7:30분
홍성, 내포성전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 시간 동일함.

축 권사 54명
명예권사 / 김영춘, 김경자, 김철수, 민문기, 박무규, 박양희
남 권사/김동규, 김영수, 김정현, 김택노, 신경세, 안진국, 윤용찬, 이재진, 조병문, 최원석
여 권사/강영자, 김경화, 김명순, 김영인, 김재덕, 김현주, 나인서, 박경화, 박기순, 박복순, 박연순, 박임성, 백영빈, 복연수, 서정자, 손미란, 신윤숙, 오선미, 유은경, 이경자, 이미란, 이미자, 이봉희, 이선민, 이선원, 이성순, 이정배, 이태욱, 이화자, 장남숙, 전용자, 정상화, 정진주, 조명란, 조혜순, 진유순, 최문경, 하미영

당임목사 오종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충남 홍성읍 홍북읍 자경로 51(전화. 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fe.daum.net/ssaxp>

▶게시록 11장 강해(62)

두 증인의 사역

(지난번에 이어서)

또한 여기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여기서의 증인은 [말뤼신 $\mu\alpha\rho\tau\upsilon\sigma\iota\nu$]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증인은 [말뤼스 $\mu\alpha\rho\tau\upsilon\varsigma$]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뤼신 $\mu\alpha\rho\tau\upsilon\sigma\iota\nu$] 증인의 복수형, 즉 두 무리, 두 집합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무리들임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즉, 인침 받은 종들, 144,000명들이 여기서의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황충의 화에서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삼년 반인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면서 황충의 화가 일어날 때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 있음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권세는 앞서 [계 2:27]과 [계 12:5]의 철장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 지팡이 되어 진 그들에게 예언할 때 그 철장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계 11:5-6]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은혜시대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권세는 더욱 큰 것입니다. 이러한 큰 권세로 그들이 예언하는데 굶은 배움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에서 상주는 배움을 입고 장례식 내내 애통해하며 곡을 합니다. 여기서 굶은 배움을 입음도 자신들이 먼저 연단 받아서 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여 그 신앙의 자리에 섰고,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적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하여 재림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심과 아울러 또 다른 배도한 교회들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가증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것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증인은 애통해하고, 탄식해 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힘써 증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증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게 되지만 이를 듣지 않는 사람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속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굶은 배움을 입을 일도 없고, 예언할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 목을 거는 자가 되어야지만 가증한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을 가져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성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쉽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굶은 배움을 입고 1,260일 예언할 자들로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리라

일반적으로 현재 은혜시대에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해 증거 하는 것 모두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시대에 예언하는 것과는 달리 환란 날에 1,260일간 예언하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10:11]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예수님의 죽음 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과 그때에 될 일들, 적그리스도의 정제,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 되어 질 것과 같은 선견적인 예언을 하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고 바로 이것이 퍼 놓인 작은 책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일곱 영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2:18]에 내가 또다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어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의 17절의 성령을 부어주어 예언하게 하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려면 반드시 일곱 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제

목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지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6절: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두 증인의 권세와 실제 사역

은혜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권세나 능력, 은사 주시는 것이 있어도 말씀 대적하는 자리에서 그 종이 불태워 죽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란 날에는 144,000에게 그들을 해지거나 대적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키고 죽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사용하여 마음껏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나요? 현재도 나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 나가야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만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꼭 그 권세를 행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권세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 절대 불사르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 구약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물뿔을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물뿔들은 반질반질한 돌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그렇게 반질반질 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의 권세는 3절의 예언의 권세와 일치되는데 이 권세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물뿔들같이 하나도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일곱 영으로 일치되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 정제를 드러내고 음녀교회에 대한 실상을 폭로하는데 그들이 대적하는 것이 극심합니다.

이때 이런 권세가 없으면 예언이나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시는데 이 받은 권세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로 주님의 말씀과 예언을 하는데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우리는 인침 받는 종들이 되어 지면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고 사역할지를 깊이 그려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 진다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실제로 되어 질 일들입니다. 실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

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은 큰 흥년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종들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현재 가뭄이고, 기갈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그냥 두면 멸망 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깨닫게 하시고자 가뭄을 주시는 것이고, 이는 엘리야 때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영적인 가뭄과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 하늘 문을 닫게 하여 실제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고 결국 갈멜 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목격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영적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아주니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여 비를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란 날에 되어 질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 환란 날에는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으로 내주시고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여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태이니 그들이 멸망한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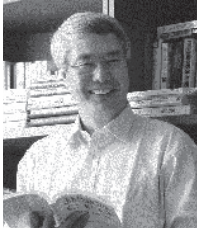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좋은 것입니다. 또한 물이 피로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역시 구약 모세 때에 모세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치니 피가 된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애굽 하수는 인본적인 사상이고, 말씀이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니 피가 된 것과 같이 두 증인들이 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퍼 놓인 작은 책을 먹은 그 진리로 쳐서 그들의 사상과 총돌되고 부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피가 되는 역사이입니다.

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사랑의 클리닉<22>

가정 화목이 활력의 샘터



황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영국의 처칠 수상은 건강에 관한 한 최악의 생활양식을 유지했던 분이다.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졸담배 폭음 비만 운동 부족 등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익장을 과시하며 66세에 수상이 되었고 77세에 재선되었으며 재임기간 중 최대의 스트레스였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고 그는 회고록을 쓰는 등 정열적으로 활동하며 90세까지 장수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낮잠이라는 피로회복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화목한 가정이었다. 몰밀 듯이 밀려오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과의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의 불꽃 때문이었다.

화목한 가정과 원만한 부부관계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최대의 저항력이라는 많은 스트레스 연구의 결론을 증명하듯 그는 가정건강학의 극적인 모델인 셈이다.

'건강하려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 있다. 사랑의 감정은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사랑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감기에도 적게 걸린다는 연구보고가 있을 정도다.

최근 '정신신경면역학'이 발달하면서 정신기능이 신체의 면역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어떠한 질병이나 스트레스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의 산실이다. 화목한 가정생활이 질병을 원천봉쇄한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귀가 후 아내가 집에 없을 때에는 그처럼 허전할 수가 없다. 역시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야 따뜻하고 포근하다. 하루에 겪었던 마음의 격랑과 갈등과 방향이 붉은 녹두 사르르 없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아내의 넉넉한 품이 아닌가 싶다. 세상에서 아무리 푸대접을 받더라도 일단 가정에 돌아오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부부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최대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부부간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증명하듯 건전한 섹스, 만족한 성생활은 온갖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결혼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고안하신 복지제도다(창 2장).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는 말씀은 심신의 건강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부부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교 이전의 학교요, 교회 이전의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과 가정생활은 가장 영적인 일이라 하겠다.

물론 가정도 가정 나름이다. 진리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 없는 결혼은 참사랑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에로스로만 이루어진 사랑은 '생의 무의미'라는 종착역에서 해체된다.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제시한 표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사도 바울은 감격적인 어조로 결혼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아무리 파내도 끝이 없는 가정이라는 신비의 샘터, 총체적 건강의 산실을 재발견하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홍익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연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은숙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 (2/3), 3동 101호 (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한동보수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배명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마순덕 목사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H.P 010-5225-1253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라후회장)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송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관호 목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 **종말, 타작심판 12** |

영안이 열려야 환난을 이긴다!

(지난 시간 이어서)

1. 타작마당(심판) 대 환란이 올 때 여기서 낫을 들고 곡식을 베고 곡식단을 구분해서 단을 묶어야 한다. 그리고 도리깨로는 뒤여 나가지 못하게 쳐야 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을 참으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으나, 열매 맺지 못 것들은 도끼를 들어 찍어버린다. 앞으로 두 증인의 자격을 갖기를 원한다면 위의 세 가지의 일을 잘 해야한다. 도끼를 잘 다루어야 한다. 도리깨를 잘 다루어야 한다. 낫을 바로 휘둘러야 한다.

다같이 암 8:2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도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고 하셨다.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지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손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큰일난다. 여기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아모스 8:2에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끝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 끝을 말한다. 종말을 가리킨다. 이제 과일이 등장하고 있다.

과일이 진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과일을 보시는데, 좋은 것만 보신다. 상하고 터지고, 썩고 낯새나는 과일은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는 오직 좋은 과일만 합격 된다. 잘 익은 과일은 합격 된다. 흠이 있고 낯새나는 것과 썩어있는 안된다. 썩어있는 이미 때가 늦었다. 오직 잘 익은 과일만 합격이다. 불합격품은 절대 안 된다. 여름 타작마당에서 되어질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내신다.

4)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의복을 바르라고 했다. 의복은 회개를 뜻한다. 신부의 자격은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 2) 3절에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다. 이는 성령을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3)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의복을 바르라고 했다. 의복은 회개를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3)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의복을 바르라고 했다. 의복은 회개를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5)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또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한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하기까지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6)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눅은 곳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 교회도 관

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라? 그것이 네게 좋을 것이니라. 2 이제 네가 함께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묵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웃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4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라

5 루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신부 단장의 일곱가지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1)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는가? 신부 준비를 위한 단장이다. 3절에 묵을 하라고 했다. 묵은 회개를 뜻한다. 신부의 자격은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 2) 3절에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다. 이는 성령을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3)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의복을 바르라고 했다. 의복은 회개를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3)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의복을 바르라고 했다. 의복은 회개를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3)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의복을 바르라고 했다. 의복은 회개를 말한 것이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4)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또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한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하기까지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5)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또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한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하기까지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6)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눅은 곳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 교회도 관

정기남 목사

편집인



제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이해를 돕는다면 신부의 자격은 신랑이 누워 계시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면 헛일이다. 그래서 신랑이 계신 곳을 알아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눕는 곳을 확인해야 한다.

7)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신랑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누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없이 하라는 것이다. 이때는 뽀뽀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을 도려 내야하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랑 예수를 놓쳐버리면 끝장이다. 이 예수님을 놓쳐 버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만났다고 하면 끝장이다. 신세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하라는 가리킨다. 그래서 자신을 전혀 주장해서는 안 된다. 루이 말하기를 어머니 저 보아스 밑에 내가 어떻게 발치까지 갈 수 있겠어요? 말도 한번 못해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발치에 가서 누울 수 있는 나면서 불평하며 불순종했다면 그 발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겠는 가, 어느 여자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루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미모가 있는 여자라면 몰라도 루이는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인이 아닌가?

그러나 하면 루이는 모압지방의 여자이다. 이방 여자이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여자이다. 그러한 과거가 있는 여인이 묵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의상을 입었음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녀를 그 발치에 들어가라 하니,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겠는가?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나 루이는 들어갔다. 발치를 들추고 누웠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구원의 문제이다. 구원의 문제는 신사적인 사람은 힘들다. 속녀는 불합격이다. 뽀뽀스럽게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야 한다. 여기에는 일곱가지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목양칼럼 31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호에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같으니라”(롬 4:4-8).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까요? 바로 겸손해진 사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은 도무지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버릴 수도 없는 죽은 사체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물(은혜)을 두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혜)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제를 알고 항복할 때까지 오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같이 항상 자신의 부족함은 감추고 잘한 것만 가지고 나와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나니.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심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1~12).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던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므로 의롭다함을 받고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했던 선과 버렸던 악들로 인해(물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자기 꾀함에 빠져 ‘그래, 난 여태껏 많은 악을 버리고 많은 선을 행했어! 그러니 남은 악들이야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될걸!’하

며 스스로 높아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고전 3:18,19),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지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라는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전체의 말씀을 범한 것임을 알고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요 병든 자요 상한 갈대요 꺾져 가는 심지임을 고백하므로 자신이 먼저 무엇을 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은혜) 앞으로 나와 겸손히 두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선물(은혜)을 받아야겠습니다.

33.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자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얼굴 되기에 만족케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막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인 다윗의 쓰라,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이고 또 하나는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입니다.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은 죽이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갈등하고 그로 인해 율법에 매여 중노릇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심 같이 죽이는 사역은 상대를 율법에 중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양으로 자랑을 삼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갈 6:12,13).

반면에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은 살리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통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부인하고 성령님만을 의뢰하여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케 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죽이는 사역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을 가지고 살리는 사역을 하십니까?

살리는 사역을 하시기 원한다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풍랑을 헤치고 살고자 했으나 다 죽게 되었을 때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모시고도 스스로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상대에게 당신의 노력으로는 죄를 버릴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과 당신은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요 병든 자요 상한 갈대요 꺾져 가는 심지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에 계신 주님을 금히 깨우고 의지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간구하게 만들으소서,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34.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죽은 믿음이란 생명(말씀)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씨(생각)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육적(혼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고 하심 같이 하나님의 씨(생각)와 지식을 좇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씨(생각)와 자기의 의로 열심히 행하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곧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TN TV 상임이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통신 신학생 수시 모집

※ 명예박사 학위 안내 ※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불타는 사명은 있으나 여러 사유로 신학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중도에서 포기하고 계신 분에게 사명감당의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사명자는 아무 조건 없이 수시 입학이 가능함.
* 개인별 이수과정이므로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02) 849-9395
(총회가입 및 목사안수 상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 (02)465-40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대림시까지 세계에 가장 깊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담임 조강수 목사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가좌동)

열두광주리 기도원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김평호 목사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뽀뽀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3급자 환영)

원장 박순종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능극리
☎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경목총회 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담임 홍창호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583-1955 H.P 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영성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예배 : 오후 7:30
목요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담임 송영화 목사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한장총 대표회장 천환 목사, 상임회장 정서영 목사 모두 단독출마



▲ 한장총 대표회장(왼쪽)과 상임회장 후보로 확정된 정서영-천환 목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10월 21일 제39-2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제40대 대표회장 및 상임회

장 후보자를 자격 심의 후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40대 대표회장 후보에는 정서영 목사, 상임회장 후보에는 천환 목사를 각각 단독 공고했다.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정서영 목사는 현재 한장총 상임회장이며, 예정 합동 개척 총회장이다.

선관위에서는 한국교회에 당면한 도전과 위기 원인에 대해 “목회자들의 사명의식 결여와 세속화에 있다”며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 변화를 이끌고 제2의 부흥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상임회장 후보로 등록한 천환 목사는

예정 고신 총회 증경총회장으로, 인천 예일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천 목사는 상임회장 출마 소견서를 통해 “한국장로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변화를 주도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장로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장총은 오는 11월 18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현 회기 상임회장 정서영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10월 마지막 주일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을 흔내 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를 전도하

기 위해서 짜놓은 연가한 친절이었습니 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가대에도 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였습니 다.

그러다 보니 매 집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셨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감격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참석한 모든 회중 역시 감격의 바다에 빠져 들었습니다. 3일 동안의 집회 시간이 정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지만 주에 우리 교회에서 「2023 목회, ReStart 컨퍼런스」를 열었지 않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하였

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교회는 상놈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세뇌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후배 녀석이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를 시골 가난뱅이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깔본

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지켜내느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겨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 젖은 헌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인포데믹(Infodemic),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자립 목회자들에게 특정 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악의적이면 서도 명백하게 인포데믹을 유포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변들만 만 아니라 측근에서도 반드시 범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를 부추기고 있지만, 돌아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보다 무익한 종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더 압도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꽃이 나비를 부르듯이 무익한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나비처럼 사명의 현장으로 날아갑니다. 눈물을 바치고 심장을 드리며 사명의 길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을 당신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매번 저를 휘감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을가 기도하고 앙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저는 평생 어느 누구에게든지 악의적 프레임을 덮어씌우거나 인포데믹을 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나비가 꿈을 꾸고 춤을 추면서 꽃을 피우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날개 짓을 하는 나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나비효과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저를 부르신 주님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이 된 주님 따르길 소망합니다"

제2차 샅렘,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 성료



GIFT 상담치유연구원(원장 전달훈, 리더아 전 박사)이 지난 8(토)부터 10일(월)까지 3일 동안 현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는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인 제2차 샅렘(Shalem)을 부에나 팍에서 개최했다.

샅렘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는 총 6개월 프로그램으로 내년 4월까지 모임과 배움, 나눔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 세미나 비용은 전액 무료다.

임상심리학 박사 리더아 전 박사는 “총 50명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 안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나누고, 기도하고, 힐링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한다”며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셨음을 피부보 느낄 수가 있

었다.

1차 샅렘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에서는 후원 없이 GIFT에서 전액 장학금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2차 때는 많은 분들이 20달러부터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남가주사랑의 회에서도 후원금을 보내 주

어서 더 풍성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봉사자 열 분은 새벽 4시부터 풍성한 아침을 만들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3일 동안 정성을 다해 섬겨 주셨다. 더욱 뜻깊은 것은 대형 교회나 큰 단체에서 많이 후원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개인들이 조금씩 힘을 모으고, 또 헌신된 섬김으로 현재 사역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개인 집을 오픈해서 행사를 한 것도 참석한 분들에게 큰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와 지역 단체들이 힘을 보태어 이 사역을 계속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달훈 박사는 “히브리어로 완전한이란 의미로 비영리단체인 GIFT For Community(501 C)에서 제공하는 전

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인 샅렘은 남을 돌보느라 본인은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목회자, 사모 및 교회 지도자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경비와 식사를 전액 장학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후원과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샅렘의 목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소제목으로 각자의 내면 탐색, 치유와 변화로 전인(몸, 마음, 영혼 관계)이 더 건강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샅렘의 대상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 선교사, 교회 지도자분들로 임상경험, 전문지식과 성서적 진리와 영성을 같이 통합한 강의와 뇌의 기능 및 심리적 정서적 현상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힐링을 얻은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GIFT 상담치유연구원 원장 리더아 전 박사는 공인 임상심리학박사로 아주사 퍼시픽 대학과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상담심리학을 가르쳐 왔으며, 전달훈 박사는 내과 앨프리 소아과 전문의로 트리니티 대학에서 관계 심리학을, 탈봇신학교에서 신학과 영성훈련을 수학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힘내세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하 전도연합회)는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를 지난 24일 로스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가졌다.

행사에 앞서 OC교협 심상은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 자녀들을 돕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도연합회 신용 회장은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센터매디컬그룹과 부대회장으로 물

심양면 지원해 준 유종배 사장님, 황선철 회장님, 차세대 인재양성에 앞장서 온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종열 장로님, 많은 물품으로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준 CJ Foods USA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참여와 후원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윤우경 이사장은 “3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준비위원들과 임원, 이사님들의 기도와 땅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전한다”며 “오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적으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선교사님들 세계에 전도연합회 장학금 소식이 접점 알려지는 것 같아 매우 흐뭇하다”고 전했다.

지녀 만찬 베크에서 말씀을 전한 CBMC 지도목사 안신기 목사는 “선교사를 돕는 거룩한 일에 동참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전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저녁 만찬에서는 11

월 선거에 출마한 영길, 미셀 바스틸, 유수연, 박영선 후보와 보좌관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이번 선거의 중요성 및 한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전도연합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준비하며 그동안 1, 2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민 김 총괄준비위원장과 대회장, 부대회장께 감사패를, 연합회 이사 전 홍장로께 특별상을 수여했다. 전도 연합회는 2019년 1회 때 15명, 2021년 2회 때 52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전달식은 오는 12월 중에 가질 예정이다.



★ 한국교회 희소식 ★

요즘 구하기 힘든 자가진단키트를 한국교회 예배의 성공을 위해 택배비 정도만 남기고 드리려고 합니다. ★국산제품 중 최고 품질 레피젠 제품과 SP바이오 제품 보유중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 잉크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의 컬러주보 복사기

컬러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검정 50,000매, 컬러 20,000매의 대용량 잉크팩이 장착된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안료)잉크를 사용한 획기적인 컬러주보 복사기입니다.



제품 특징

1. 3단 6면주보 출력
2. 4단 8면주보 출력
3. 60cm 배너 출력
4. 주보 양면 연속 출력 (카세트 A4주보)
5.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6. 후면 금지대(80매 적재)

인터넷 최저가대비
50만원
저렴!

199만원 99만원
※ 금번 주문하신 분에 한하여 LED 십자가 1박스(20개)를 드립니다

경제성

- 자동양면인쇄 및 양면스캔 지원
- 경제적인 슈퍼대용량 잉크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소모품비용 획기적 절감(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비용 소요

생산성

- 128cm의 대형 컬러 터치패널
- 동급최강의 빠른 출력속도 (24~34매)
- 검정 5만매, 컬러 2만매 대용량 잉크팩
-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잉크 사용
- 대용량 용지급지함 지원

효율성

- PC없이 스캔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음
- 1989년 창업의 30년 노하우 제공
- 신속, 정확한 A/S로 업무의 원활함 극대

초강력 공기 정화기

쿠팡 히트 상품을 교회에 한해서 1+1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의 퓨리어와 함께라면 당신이 숨쉬는 그곳이 바로 자연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사냥꾼 '퓨리어'



Why! 퓨리어인가?

-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강력 중화제거
- ▶ 양이온(오염원공기, 전자파, 매연) 중화제거
- ▶ 오미크론 바이러스 교통수단 차단
- ▶ 각종 악취가 서서히 사라지는 쾌적한 기분
- ▶ 천식, 비염 1~2회 체험 강력추천 & 절대적 반응
- ▶ 깊은 산중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하게 되는 느낌!

소비자가격 396,000원

'PUREIR' 공기정화기의 특징

- ▶ 측정수치와 반응이 눈에 보이는 공기정화기
- ▶ 철저히 검증된 세계적 기술의 핵심 칩 장착
- ▶ 무필터에 月100원의 전기료가 전부
- ▶ 거실, 방, 사무실 등 이동이 간편한 퓨리어!
- ▶ 초강력 공기정화와 소중한 자연의 느낌까지

퓨리어가 필요한 곳

교회, 기도실, 침실, 수험생, 사무실, 컴퓨터방, 애견방, 미용실, 축사, 어린이집, 병원, 노래방, 오락실, 유흥업소, 주점, 식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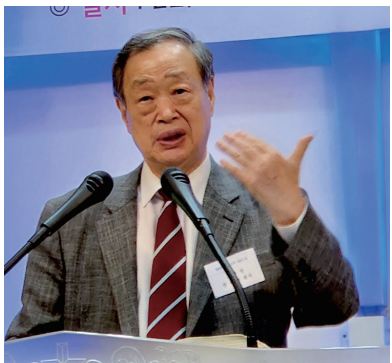
1개월에 한번만 음이온 발생부 / 제품 뒤 백면 50cm 이내 청소만 관리 끝! (관리방법 : 홈페이지참조)

KBS 추적60분에서 확인된
세계 최초 순수음이온 칩 장착
'PUREIR'에 장착된 핵심 칩은
철저히 검증된 제품입니다.

홈페이지 www.sulayeon.com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제29회 정기노회 가져

노회장 장한국 목사 유임, 김종천 목사를 서기로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회 제29회 정기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가 지난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삼전동 “반석교회”(김종천 목사사무)에서 개최되어 1부 예배,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후 폐회 예배를 끝으로 성 노회를 마쳤다.

서기 대행 김은임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 인도자는 성경히 11:35절을 봉독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제2부 성찬 예식은 노회장 장한국 목사 집례로 시작되어 마 26:26-28을 중심으로 성찬식을 진행했다. 분병, 분잔 위원으로 정상열 목사, 최순란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3부 회무 처리에 들어가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진환 목사가 기도하고, 회원 점명과 개회선언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임원 선거는 ① 선거위원장 김종천 목사, 위원 김정미 목사, 김은임

목사, 유순옥 목사 등이 논의하고, 현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차기 노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공전위원회의 결의를 발표하고 노회원 전원 만장일치 박수로 선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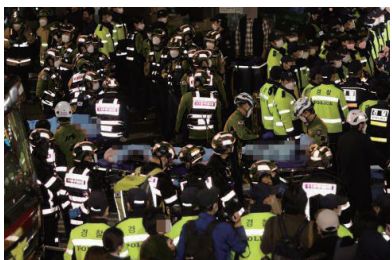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노회장에 선임된 장한국 목사는 ② 규칙에 의거 차기 노회 임원으로 28회기 임원을 그대로 연임시키고 공식인 서기 박민규 목사가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김종천 목사를 서기로 추대하노회원의 박수를 받았다.

대한노회 제28회기 임원은 노회장 장한국 목사, 서기 김종천 목사, 회회록서기 김은임 목사, 회계 김정미 목사 등이 선출되었다. 이날 대한노회 차기 장소는 현 임원회에 일임하고 정기노회가 폐회되었다.

제4부 폐회 예배는 노회장 장한국 목사 인도로 유순옥 목사(감사)가 기도 하고, 장한국 노회장은 성경을 봉독한 후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함으로 대한노회 제28회기 정기노회가 성은 중 마쳤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는 지난 9월 8일 오전 11시 제107회기 성총회를 열고 선임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선임서기 전상열 목사(새예루살렘교회), 신입회회록서기 김은임 목사(감사교회), 선임 회계 김정미 목사(새예루살렘교회) 등이 선출되어 성은 중 맡겨진 일에 사역에 들어갔다.

기공협 “이태원 할로윈 참사, 우리 사회 근본적 점검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지난 10월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기공협은 “병원에 입원중인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특히 “기공협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최우선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지난 10월 29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에 참석했던 우리의 아들·딸 15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하여 큰 슬픔과 비통함으로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속히 건강을 빠른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현재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보다 귀하니.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주셔서 최우선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3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남원중앙교회, 창립 70주년 다양한 사역 개최

감사 및 비전선포예배, 감사예배 및 임직식 진행

남원중앙교회(예하성, 담임 정종승 목사)는 지난 2일, ‘감사, 은혜, 섬김의 70년’ 주제로 창립 70주년 감사 및 비전선포예배,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진행했다.

교회 창립 70주년과 임직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영적여정의 15일 전성도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선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며, 제2기의 70년을 향하여 새롭게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지난 2일 주일 오전 7시30분, 11시에 있었던 감사 및 비전선포예배에서 정종승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더하여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정 목사는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7가지 모습,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전도(선교)하는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70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며 “70주년을 맞아 다음세대부터 세계열방까지 품은 선교사역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목표, 중점추진과제, 핵심가치 등을 나누었다.

오후 4시에 진행된 감사예배 및 임직식은 남원중앙교회 아이노스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하였다. 제1부 감사예배는 예하성 전복 지방회 총무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의 사회, 지방회 회계 박종석 목사(참사랑소망교회)의 대령기도, 지방회 서기 김선식 목사(하늘소망교회)의 성경봉독, 남원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더욱 사랑”의 특별한 양,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좋은나무교회)가 사도행전 6장 8-15절을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하였다.

유관영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남원중앙교회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 헌신, 순종하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부 임직식에서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가 장로 임직자 이정수, 박동식, 지인희, 한형권, 손기수 씨를, 명예장로 임직자 강성원, 김봉옥 씨를 소개한 다음, 장로 임직 서약을 받고,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남원중앙교회 장로임을 공표했다.



집사안수식부터는 정종승 목사의 사회로 안수집사 임직자 박상근 의 5명, 명예안수집사 임직자 장영규 의 1명을 소개한 후 안수집사 서약을 받고,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남원중앙교회 안수집사임을 공표했다.

권사취임에서 정종승 목사가 권사 임직자 김명숙 의 10명을, 명예권사 임직자 김금순 의 3명을 소개 후 권사 임직 서약을 받고,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하고 남원중앙교회 권사임을 공표했다.

시무장으로 5명, 명예장로 2명, 안수집사 6명, 명예안수집사 2명, 시무권사 11명, 명예권사 4명 총30명이 임직 되었다. 임직자들은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서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2007년에 임직받아 교회를 섬긴 양육목 안수집사, 정영선 안수집사, 정명숙 권사의 은퇴식이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제3부 축하행사에서 이다솔, 이진용 청년의 ‘침묵’ 제목의 축하를, 남원중앙교회 사랑중창단의 ‘나를 통하여’ 제목의 축하를, 남원중앙교회 다음세대 예람위임팀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곡으로 축하워십이 있었다.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권면과 지방회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사 후 영상으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교회성장연구소장 김영석 목사, 인도네시아 최원금 선교사, 필리핀 홍영기 선교사, 원주총정교회 최규명 목사, 회복과 성장 대표 염은희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직자 대표 박동식 장로는 인사말에서 “남원중앙교회 임직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 말했고, 정종승 목사의 광고 후 참석자 모두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되었다.

남원중앙교회는 1952년 10월 3일 기도처로 시작하여, 1953년 3월 15일 남원시 죽향동 75번지 현 교회 위치에 말방(18평)을 구입 수리(건물12평)하여 예배처로 시작했으며, 그 해 10월 3일에 박성산 목사를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남원시 죽향동 시내 중심가에 세워진 교회는 70년에 이르는 세월을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며

주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남원의 대표적 인 교회가 되었다.

2021년 5월 31일, 정종승 목사가 제14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남원성시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앞장 서고 있다. 정 목사는 오랫동안 연합기관과 목회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겸손한 자세로 섬김을 몸소 실천하면서 남원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남원중앙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세미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레바논 선교사 초청 선교예배, 기아대책과 함께 한 우크라이나 긴급구원 선교예배, 다음세대, 부모, 교사와 함께하는 비전세대 찬양집회, 가족사진 콘테스트, 좋은열매 도서관에서 주관한 감사쓰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10월16일 탄자니아 아루사 갈보리교회 필립 목사 초청 집회와 10월 30일, 11월27일 태국 선교사 초청 선교예배 등으로 진행 된다. 성도들이 창립기념주일에 드린 창립 70주년 감사예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0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과 다음세대를 위한 목표 및 비전을 선포함으로 다음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품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축 제107회 진리총회, 성총회 감사 임원일동

주제 :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시 107:25)

총 회 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전상열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제107회 예장진리총회 정기총회 및 대한노회 제28회기 성 노회를 성은 중 마쳤기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총회와 노회 임원일동 축하드립니다.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흐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전상열 목사 010-453-1719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죄 사함
성경: 출애굽기 13:14 찬송가 254장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에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린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재앙을 넘여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자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제2의 사망을 넘여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만 물어봅니다. 아무 조건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목: 멈추고 나아가라
성경: 출애굽기 14:15~20 찬송가 91장

애굽을 읽다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을 때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막히면 멈추고 열리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목: 그리스도의 종
성경: 로마서 1:1~3 찬송가 492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세

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고백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으며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승리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의식이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택하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 로마서 1:4~6 찬송가 493장

그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주신 오늘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받은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장 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빌2:13).

제목: 생명의 힘 1
성경: 마태복음 13:31~32 찬송가 490장

요셉은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불통일 때 형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노예 생활로 종이 된 것이 형통이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애굽에 종살이로 팔리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시자’라는 의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꿈틀거리면 열매가 있습니다.

제목: 생명의 힘 2
성경: 마태복음 13:31~32 찬송가 490장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자라서 세계 열방을 덮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와서 그 자리에 깃들게 됩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약2:26).

제목: 올 때 기도할 때
성경: 에스겔 14:12~23 찬송가 449장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과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는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원은 일대일입니다. 그들이 의인이라고 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14:9~10절을 보면 가령 선지자가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 거짓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언자도 멸망하고 그 말을 들은 자도 멸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녀와 가족을 위해 올 때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제목: 주권
성경: 로마서 9:19~29 찬송가 370장

본문 19-20절에 하나님께 어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물을 수 있겠냐고 합니다. 잠언 16:1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듯이 창조자의 마음입니다. 만드기가 필요에 의하여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목: 우리를 돕는 분
성경: 시편 91:9~13 찬송가 371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의 명하시는 일들을 만드는 자들인데, 성도들의 모든 길 즉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돕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막아주신 것처럼, 또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사도 베드로를 기이하게 빼어내신 것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목: 의와 선
성경: 시편 91:14~16 찬송가 92장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하며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은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을 것입니다.

제목: 기억하며 지켜라
성경: 출애굽기 23:16 찬송가 592장

우리나라에 명절은 귀신이 주인이지만 성경의 명절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경에서 명절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 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큰 사건과 역사를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3대 절기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며 꼭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팔레스틴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와 올리브 등의 한 해의 추수가 모두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기념절기 곧 추수 감사절입니다. 한편 이 절

기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모든 수확물들을 다 거둬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나뭇가지 등을 꺾어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목: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하여
성경: 신명기16:13~17 찬송가 588장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족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23:22절에도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는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제목: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성경: 시편 100:1~3
찬송가 254장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온 땅’은

편집인 칼럼

젓소를 많이 방목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울지 않은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목사님의 심방을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심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사하는 방법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였답니다.

그래서 방목하고 있던 젓소를 몽땅 팔아버렸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이 매일 마실 우유를 마련하기 위해 젓소를 한 마리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 해지더군요. 그리고 그가 점점 말씀을 가까이함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인들이 하나씩 그의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

내게 있는 것 모두

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겨 놓은 젓소 한 마리가 떠오르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하고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이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에 꿰뚫어 보시고 “남겨 놓은 한 마리의 젓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젓소 한 마리마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완전한 성령의 체현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운전하지 않은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물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있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목: 영원히 감사하라
성경: 시편 100:4~5 찬송가 255장

시인은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시며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감사찬송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은 성도들 인생의 주재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주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포어 :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복음으로 세계를 품는 예복교회의 선교사명
Global Yebok

주일예배	대예배	1부:오전930 2부:오전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7시
	유치부	오전11시
	주일학교	오전11시
	청년대학부	오후2시
수요일예배 금요일아침예배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오후230분
		수요일 오후8시
		금요일 오후10시
심야기도회		토요일 오후10시
		매일 오후10시 단,주일과수요일은제외



담임목사 소진우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한국 교회와 목회자 초청 영성회복을 위한 대성회

인천 영광교회 연속 축복 대성회

강사진

조강수 목사
인천영광교회최건숙 목사
백남중앙교회배정희 목사
백남교회우사랑 목사
백남교회이선한 목사
학익영광교회

▷ 일시 : 매주(월) 저녁 ~ (금) 저녁까지
오후 2시, 저녁 7시
▷ 장소 : 인천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 전국목회자부흥사업위원회 (대표회장 배정희 목사)
이사장 : 조강수 목사 / 사무총장 : 이선한 목사 문의 010-8291-8081

교회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가좌4동 4-24번지)

오시는길 : 인천 1호선 동암역 북광장에서 593번 버스 승차하시고 종점에서 하차(영광교회)

축 지저스타임즈 창간 제18주년 감사예배 공고

이사장	직전이사장	사 장	창간 18주년기념 감사예배 지저스타임즈 /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업위원회 정기총회 이사회											
오중석 목사	허창복 목사	소진우 목사	정남수 목사	조강수 목사	정기환 목사	정국수 목사	안규결 목사	백종수 목사	권돈순 목사	홍병수 목사	박승영 목사	홍대석 목사	강사수 목사	안규결 목사
김동수 목사	유승수 목사	송은수 목사	백돈순 목사	안규결 목사	소진우 목사	정남수 목사	정기환 목사	정국수 목사	안규결 목사	백종수 목사	권돈순 목사	홍병수 목사	박승영 목사	홍대석 목사
배정희 목사	안규결 목사	우사랑 목사	이선한 목사	정남수 목사	정기환 목사	정국수 목사	안규결 목사	백종수 목사	권돈순 목사	홍병수 목사	박승영 목사	홍대석 목사	강사수 목사	안규결 목사

일시 장소 안내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현대프라자 301호)
장소 : 인천 시온교회(조영만 목사 사무) / 안내 : 류재현 사무총장 010-3788-1130 박찬주 총무국장 010-8863-2070
차량 : 네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하고 오세요. 전화문의 인천 시온교회 070) 7501-2584 010-5055-2584.

본사 홈페이지
지저스타임즈(신문)
CJTN TV <http://jtntv.kr>
CPJ TV <http://cpj.kr>

신문방송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02호) 전화 /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 : 010-5468-6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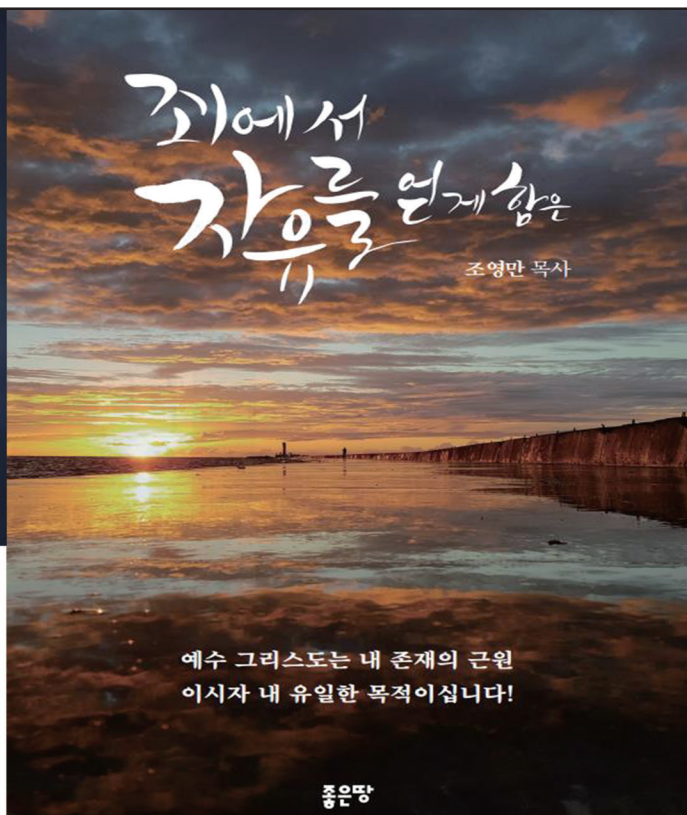


조영만목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경인백석신학교 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사장
(원)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진) 인천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진)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진)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
(진) 인천 동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인하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전공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10회

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나눔 출판사)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아가강해 상』(나눔)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아가강해 하』(종은평)
『자유하리라』(종은평 출판사)
『거듭나는 성경재료가 아남입니다』(창송 출판사)
『전인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나눔 출판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존재의 근원
이시자 내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종은평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온교회 658101-01-715840 국민은행
책가격 : 15,000원
다음 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유튜브 : 조영만

목차

1. 성경을 이루려면
2. 죄에서 벗어나려면
3. 기쁜 소식(1) -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4. 기쁜 소식(2) - 원죄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6. 속사람(재사람)을 간관케 하는 비결
7.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8. 겉사람(겉사람) 굶겨 죽이는 비결
9. 죄를 짓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제 끝
11. 죄로 인한 죄결과 실패와 괴로운 이제 끝
12. 독립군과 해방군
13. 세상을 이긴 이김 - 물과 피와 성령
14.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15. 창대위에 단 돛대를 바라보라
16.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죄결과 허락하신 이유
17.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18.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19.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20.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21. 예루살렘(성경)에서 광야(육신)로
22. 광야(육신)에서 성지(성경)으로
23.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24.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25. 두 번 죽어야 성경의 은사
26.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27.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8.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9. 목회사신(000 목사님께)
30.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31.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 - 멸망한 다리에 뭘 목발?
32.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1)
33.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
34.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1)
35.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3)
36. 성경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4)
37. 작은 말뚝에 매어 있는 불쌍한 코끼리
38.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1)
39.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2)
40. 죄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합니다?
41.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1)
42. 마음(혼)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2)
4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
4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2)
45.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46. 죄의 권능은 물입니다.
47. 공개! 마음의 경각 비결
48. 안식 그 이후
49. 죄(Sins)사함과 죄(Sin)에서의 해방
50. 목회사신(000 성도님에게)
51.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의미는?
52.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53. 영의 사람이 되려면?
54.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
55.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5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나?
57.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삼지 마세요!
58. 계집종과 그 아들을 찾아내라!
59.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60.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2)
61. 모세가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
62. 메뚜기와 나비(죄 먹는 선함과 밥 먹는 선함)
63. 원수마귀의 거짓말
64. 영적 생활의 기본 원리
65. 알곡과 낻에 안식하시니라!
66.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은?
6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68. 첫 열매로 들림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69.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70.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시라 그 일은?
71. 완전 착복 착각하시는 주님
72. 마지막 때 지어야 하는 상종하 상종 방주는?
73. 젊어서 낳은 자식이란?
74.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려면?
75.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